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8월-용맹정진의 달

- 해태심의 극복
- 날마다 발심하기
- 정진의 방편
- 쉽없는 수행

해태심의 극복



여름수련회에서 참선정진으로 일상에 찌든 몸과 마음을 추스리는 불자들. 사진은 해인사수련회.

무더운 날씨에 몸도 마음도 지쳤다. 한해의 반을 훌쩍 넘은 이맘 때쯤이면, 새해에 다짐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하나둘씩 꼬리를 감추기 쉽다.

생활 속에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며 불자로서의 참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했던 이들아래면 지금 자신의 자리를 되돌아보자 시작이 반이다. 초발심이 곧 깨달음이라 하지만, 나머지 반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 발심조차도 의미를 잃는다.

부처님은 <법구경-방일품>에서 '방일을 스스로 금하고/능히 물리쳐 어질게 된 이는/이

왼쪽 팔을 잘라 흰 눈을 붉게 물들였고, 선불교의 법을 이었다. 깨달음의 가르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팔을 자른 헤가선사의 용맹심을 본받아 자신을 곧추 세우고, 거듭 정진해야 할 때다.

올해도 전국 150여 사찰에서 수많은 불자들이 화두를 붙들고 정진 하고 있다. 몸과 마음을 쉬면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수련회가 말로 더위로 일상에 찌든 현대인들의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최고의 방편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가까운 사찰 수

지친 몸과 마음 추스르기 여름 수련회 최고방편

미 지혜의 누각에 올랐으니/위 태로움에서 벗어나 편안하다'고 하였다. 다시 한번 뜻을 세우고, 내태해진 일상을 추스르자. 게으른 마음은 흐트러진 생활습관에서부터 비롯된다. 순간순간에 집중하여 매사에 최선을 다하며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엄격하게 대하자. 뼈를 깎는 고통과 노력 없이 쉽사리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달마선사에 이어 중국 선불교의 제2조가 된 헤가선사는 눈 내리는 날 달마를 찾아가 법을 구했다. 헤가선사는 "천하에 붉은 눈이 내릴 때 제자로 삼아 주겠다"는 달마선사의 한마디에 조금의 주저도 없이 자신의

련회를 찾아 일상의 게으름을 떨쳐내자. 해태심(懈怠心)은 바로 끊임없는 정진으로만 극복할 수 있다. 내가 처한 현실을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힘은 바로 정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땀 흘려 정진하는 이들에게 여름은 짧다. 우리의 몸과 마음, 삶의 본성을 찾고 바로 보기 위해 부처님 말씀 따라 정진 또 정진 하자.

"게을리 지내지 말라. 나도 게을리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해탈을 이루었다. 한없는 좋은 일은 게으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법에 의지하여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 <열반경> 이은자 기자

신행 캘린더

8월 7일 (수)

■세계연꽃전시회=세계의 연꽃을 감상할 수 있는 세계연꽃전시회가 25일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서울종합촬영소 내 운당(雲堂)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50여 종의 연꽃을 감상하고 연꽃을 재료로 만든 연반(蓮飯), 연자죽(蓮子粥), 연엽종(蓮葉酒) 등의 음식도 맛볼 수 있다. (02)3443-2513

■'마음·붓길의 자유로움展'=해인사가 김양수 화백을 초청, '마음·붓길의 자유로움' 주제의 전시회를 마련했다.

해인사 구광루에서 20일까지 열릴 예정. 질박한 수묵화의 절제

미와 여백미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 (02)487-7759

8월 9일 (금)

■용진신행회 '성지순례'=오대산 적멸보궁 상원사와, 월정사, 남대(南臺) 지장암을 찾아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는 오대산 상원사는 조계종 초대 종정 방한암 선사의 선풍을 느낄 수 있는 곳.

용진신행회는 오전 6시 30분 을지로 5가에서 출발, 상원사에서 사시마지를 봉행하고 지장암과 월정사를 참배한다. 참가비는 2만 원. (02)2279-1191

8월 10일 (토)

■대원사 '여름명상음악캠프'=한 여름밤 서늘한 산사에서 맞는 명

상음악의 향연.

보성 대원사가 9월 5일까지 매주 주말마다 명상음악가들의 공연을 마련했다. 10일에는 광주 재즈오케스트라 유상호씨가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줄 예정이다. 채광자, 태베트인 명상음악가 나왕게, 김범수씨 등의 명상음악 공연도 계속된다. 참가비는 2만 원. (061)852-1755

8월 13일 (화)

■불교TV '유식삼십승 강의 수련회'=고대 인도 불교학자 세전(世親)의 유식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불교TV는 은양 보문사로 금강선원 주지 혜거스님을 초청, 유식학을 배우는 불교강의의 수련회를 마련했다. 혜거스님은 올 3월부터

시작한 불교TV 강연에서 못 다한 유식학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쉽게 풀어줄 계획이다. 참가비는 6만원. 오후 2시까지 보문사로 모이면 된다. (02)3270-3366

8월 14일 (수)

■EBS '관세음보살 주제 강연'=미국 유니온 신학대학 환경 교수가 오전 10시 EBS 21세기 여성특강 프로에 출연, '지혜와 자비의 치유사 관세음보살'을 주제로 강연한다.

현경 교수는 현대 여성들이 관세음보살의 지혜와 자비를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해 강연할 계획이다. (02)526-2000

■본동종합복지관 '아동문화기행'=본동종합복지관은 매달 어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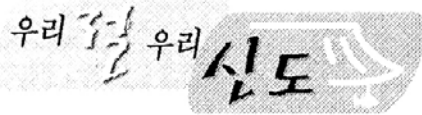
이들과 함께 떠나는 문화기행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달에는 국립현대미술관을 견학하고 서울랜드 야외수영장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낼 예정이다.

참가비는 매월 1만원. 출발은 오전 9시 30분 복지관 앞. (02)817-8052

■인각사 '일연문화제'=일연스님이 삼국유사를 저술했던 장소인 군위 인각사가 스님을 기리는 '일연문화제'를 14-16일 3일 동안 개최한다.

14일 학술세미나, 15일 태평무 무형문화재 흥진희 씨와 살풀이 무형문화재 오미자 씨의 공연, 염무웅 교수의 시강연 및 시낭송회, 16일 제713주기 일연스님 차례제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054)383-1161

“힘들수록 서로 돕자” 봉사철학



부산 미용사 자비원 장일선 후원회장

부산의 재래시장인 자유시장에는 상인들에게 '당당하게' 돈을 걷는 사람이 있다. 크고 작은 가게의 주인부터 풀빵을 파는 사람까지 그 사람이 '됐다' 하면 두말없이 주머니돈을 털어낸다.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더욱 당당하게 돈을 내라고 하는 주인공은 장일선(47 선덕회) 미용사 자비원 후원회 회장. 장 회장이 견오려 다니는 돈은 자비원 후원금이지만 돈을 내는 사람들은 '어디에 쓸 것인지'를 전혀 묻지 않는다. 다만 언젠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에 맞춰 돈을 모아 장 회장에게 건넬 뿐이다. 사람들은 그만큼 회장을 믿는다.

85년 미용사와 인연이 된 장 회장이 자비원 후원회장을 맡은 것은 86년. 그러니까 정확히 16년을 한결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도움을 주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오랫동안 보아왔기에 장 회장이 한 폰도 헛되어 쓰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

"어려운 사람이 힘든 행편 잘 알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 행편이 되면 돈을 내라고 합니다." '힘들수록 서로 돕자'는 것이 장 회장의

의 봉사철학이다. 처음 자비원 일을 맡을 때만 해도 불교계에서 봉사나 복지 사업을 하는 곳은 드물었다. 장 회장 역시 성당에서 봉사활동을 해오다 소외된 곳에 도움을 주고자 설립된 자비원의 취지를 알고는 마음을 돌렸다.

'불교도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는 반가운 마음으로 무작정 일을 시작했다는 장 회장은 우선 후원회 활성화부터 서둘렀다. 자비의 종소리 모금을 계기로 매월 2천원의 회비를 내는 후원회원을 모집했고, 이제는 월 회비 1만원을 내는 회원이 230여 명이나 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이

“어려운 이웃 내 가족처럼” 자비실천 생활화 회원 230명 후원금 내 구치소·요양원 방문

런 든든한 후원자들을 바탕으로 자비원은 구치소, 교도소 교화, 마산결핵요양원 후원, 외국인 노동자와 명절같이 보내기, 독거노인 후원, 장학금 지급, 새생명광명회 후원, 중국 연변 언론인 초청 한국 연수 등의 사업을 전개해왔다. 후원회의 봉사는 비단 재정적인



<몇년전부터 후원을 하고 있는 성우원을 방문, '엄마'라고 부르며 따르는 원생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일선보살(가운데).>

것에 그치지 않는다. 장 회장을 비롯한 많은 회원들이 장기 및 시신 기증을 서약했을 정도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이면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는다. 덕분에 육화신행회, 육바라밀회, 염불신행회 등 미용사의 다른 신행 단체들도 자비원 후원회 일이라

는 한 이 일을 그만두지 않겠다는 각오다. 조방연등회, 불교방송나눔회, 재리시장 상가회 등의 봉사에 내는 후원금이 만만치 않지만 '부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절반 이상을 내놓을 정도로 장 회장의 이웃 사랑은 남다르다.

자비원 총무로 10여년 장 회장과 함께 일해 온 최순옥 보살은 "남 어려운 거 못보고 있어요. 그냥 지나가지 못하니 여태껏 해왔지. 아니면 힘들어서 진작에 그만두었을 거예요"라고 말한다.

대학생인 두 딸 지혜, 지영이도 든든한 후원자이자, 몸으로 뛰는 봉사자들이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지영이와 함께 본격적인 복지사업을 펼치겠다는 원을 세운 장 회장은 가까운 시일내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놓았다.

추천의말

정각스님 미용사 주지



장 회장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이 마산결핵요양원에서 결핵환자들에게 밥도 해주고, 함께 밥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주던 모습입니다. 전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 다. 그만큼 장 회장은 자리아타의 정신이 살아있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보살입니다.

특히 불교에 국한되지 않고 종교를 초월해서 사람들에게 봉사활동의 기쁨과 보람을 전하는 봉사를 통한 포교사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신심이 돈독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장 회장은 자신보다는 그늘진 이웃을 위하는 실천이 생활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덕분에 형편이 어려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고, 자비원 복지사업도 크게 활성화되었습니다.

불철주야 힘쓰고 있는 장 회장에게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전합니다.

"부처님법만 믿고 고맙고, 또 부처님법을 실천할 수 있어 고맙다"는 장 회장. 한 생 태어나지 않는 셈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각오를 매일 다진다. 부산=천희희 기자

미얀마 아우미따지 대학원 제2회 명예 (박사) 학위 취득 연수

세계불교 중심지이며 불교의 극락이라 불리는 미얀마 아우미따지 대학원에서 제1회 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분들의 요청에 의해 다시 한번 연수교육을 실시 하게 되었습니다.

- ❖ 교육과목 - 백침술(100%확실하게 살빼는 속효 법) 정통사주학, 관상학, 독성법, 비방단침술, 특수기공도통법
- ❖ 지원자격 - 학력, 나이 관계없음(선착순 25명)
- ❖ 제출서류 - 등본2통, 사진5장, 여권, 비자, 지원서1통
- ❖ 접수기간 - 양력 7월 15일 ~ 8월 26일까지. (일정은 앞당겨 질 수 있습니다)
- ❖ 교육기간 - 양력 9월 1일 ~ 6일 까지(5박6일)



전화 031)867-4131, 011-214-4135, 018-370-4133

MYANMAR, YANGON

yangon office : 5b 3b floor, kamayut, townshlp 2ayarthlrl rd,

아우미따지 불교성도대학 한국분원 사무국

설정스님 초청 "달마관심론", "선경어" 특강

수덕사 발심회에서는 설정스님을 모시고 "달마관심론", "선경어"를 보고자 합니다. 선원에서, 때로는 소임지에서 바쁜 나날을 지내며 정진의 마음을 잡고 지내다보면 옛 선사스님들의 어록을 보아도 글과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발심회에서는 지난 수년간 설정스님을 모시고 선 어록을 보아온 바, 이제 좋은 인연이 익어져 "달마관심론"과 "선경어"를 들을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방의 뜻있는 모든 스님들에게도 이 귀한 인연을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수회 동참하기를 권합니다.

강의 동참안내

- ☐ 일 시 : 불기 2546(2002)년 8월 23일 ~ 27일(음 7월 15일 ~ 19일) (입방접수 23일 오후 7시, 입개 24일 오전 7시, 강의 24일 오전 9시)
- ☐ 장 소 : 덕숭총림 수덕사 향아정루
- ☐ 수강료 : 3만원, 교재비포함
- ☐ 준비물 : 가사, 필기도구 및 개인용품
- ☐ 문의처 : 041)634-6777, 041)632-8917(용봉사)

■ 주 관 : 수덕사 발심회 ■ 후 원 : 대한불교 조계종 덕숭총림 수덕사